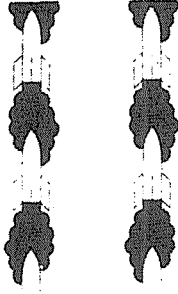


電子工業日誌



〈93. 4. 1~4. 27〉

4. 1: 파기처, 산업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핵심 기술(미디어 테크)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PC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 등 13개 대상기술분야를 선정 집중지원키로 했다고 또한 KIST내에 기획평가단을 확대 산·학·연 협동센터(가칭)를 설치 각부문별, 산업별 관련기업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4. 10: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의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모두 1조 4,200억원의 공공재원을 추가로 조성 올해 2,000개의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4. 14: 정부,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15조 1,9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구매물자의 중소기업제품비중은 '92년 61.1%에서 64.4%로 3.3% 포인트가 높아지게 됐다.
4. 14: KAIST, 초당 2,500만개의 명령어와 고속의 그래픽처리 기능을 갖춘 32비트 RISC(명령어 축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개발했다. 「그림돌」로 명명된 이 RISC칩은 자체설계기술과 0.8미크론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가로·세로 1cm크기의 칩에 38만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켜 25메가 Hz의 동작주파수와 25MIPS의 명령어 처리속도를 갖추고 있다.
4. 15: 상공자원부, 자금·정보·

기술 등을 지원 집중 육성하는 유망중소기업의 선발대상 업체가 종전의 50인 이하 제조업체에서 종업원 100인 이하 제조업체로 발굴대상이 확대 된다고.

4. 16: 상공자원부, 항공우주·자동차·반도체·컴퓨터 등 15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4. 18: 상공자원부, 올해 기계류·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 목표를 800개 품목으로 결정하고 그 가운데 1차로 505개 품목을 선정 고시했다. 기계분야가 291개, 전자·전기분야가 170개, 소재가 44개로 모기업과 계열중소기업간에 개발을 위한 사전협약이 이루어져 판로가 확보된 품목과 첨단기술을 요하는 품목, 규격의 통일로 수요가 증가되는 품목들이다.

4. 21: 상공자원부, 전자정보산업의 기술개발·국산화 및 자동화를 위해 작년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1,300억원을 업계·학계·연구소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지원키로 했다고 이에 따라 HDTV, G4 팩스, 중형컴퓨터, 배전자동화 시스템 등 기존 중점기술개발대상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대형컴퓨터 256D램을 추가로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고
4. 23: 상공자원부, CATV기기 개발을 위해 올해 15억원, '94년에 20억원을 지원, 유선방송 서비스 개시 목표연도인 '95년초까지 현재 60% 수준인 기기국산화율을 85%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4. 23: 상공자원부,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의 1차 지원대상으로 한국비료공업의 「세제용 메틸렌클로라이드 제조시설설치사업」 등 9개 업체, 11개 과제를 선정 모두 20억 6,200만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4. 27: 체신부,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확인 증명규칙 전자파장해 검정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령 등 4개의 개정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 27: 정부, '86년 공업발전법 제정 이후 기술·인력·토지 등 기능별로 이뤄진 산업지원 방식을 수정,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지원방식으로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